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양면

김민지 (안양여고)

목차:

1. 서론: 세계화 및 최근의 미~중 패권 경쟁
2. 자유무역의 역사와 실제 및 보호무역의 등장
3. 미국의 보호무역 스타일
4. 중국의 자유주의 무역 스타일
5. 결론

1. 서론: 세계화 및 최근의 미~중 패권 경쟁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화는 그 모습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차례로 근대적인 산업을 발전과 풍부한 노동력, 식민지 지배를 통해 기반을 다져 나갔으며, 산업화는 보다 커다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품목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했다. 더해,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의 성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그 운송 비용을 크게 줄였고, 철도산업의 발전은 내륙지역 내에서의 무역과 상업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각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UN¹⁾을 설립하여 국제적 협력 체제를 형성했다. 또한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그간 전쟁과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각국의 무역을 활성화 키는 것 등을 주 목표로 삼았다.

이후 국제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지속되면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무역 및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정보 기술 등의 발전에 더불어 국가간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점차 축소되며 점차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여러 무역협정과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생산품들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치므로 국제무역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무역정책이다. 반면 자유무역체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²⁾은 협정을 맺은 상대국과 관세의

1) 외교부-UN 조직과 구조-https://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

철폐, 무역 특혜 등,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이 자유무역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세계화³⁾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선진국이 자국 산업은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농업 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가 불공정 무역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세계화는 정말 문제가 있을까? '자유무역이 무역의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라는 경제 논리가 틀렸나? 세계화로 인해 전체적인 불평등 및 삶의 수준은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불평등은 더욱 크게 사회 깊이 자라고 있다.

세계화 및 탈세계화를 둘러싼 찬반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어, 과연 국제무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세계화로 인해 각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하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넓혀가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서 급격한 경제발전과 주변국가들에게 서서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세계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진영을 키워 나갔으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 강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개혁정책으로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미국을 이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점차 사회 각 분야로 확장되어 정치, 기술들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부문에 그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2. 자유무역의 역사와 실제 및 보호무역의 등장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상에서 정부나 국제기구 등 외부 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달리 국가가 나서서 타 국가의 무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국의 상품과 상업을 보호하는 무역 제도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기초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서 시작되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때 미국과 그의 서방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GATT를 창설하여 무역의 자유화 협상을 추

2) 관세청-자유무역협정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

3) 세계화-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6041&cid=46634&categoryId=46634>

진해왔다. 최근에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그 회원국들 간의 무역 자유화가 널리 전파되고 있다.

보호무역은 15~17세기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중상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금, 은 등의 실재하는 귀금속의 보유량에 따라 국가의 부를 결정지었다. 그래서 유럽의 각국들은 국가에 이러한 재화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따라서 국가에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수출은 최대한 많이, 수입은 최소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위해 수출 장려금 제도를 실시했고 자국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심지어는 식민지 국가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식민지 국가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의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상주의는 유럽의 절대왕정이 붕괴되고 중상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중상주의로 인해 모든 이익은 국가에 귀속되고, 수출만을 강요하다 보니, 국민들의 소비와 수입을 지나치게 억제하게 되어 많은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일방적인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무역이 연속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중상주의에 대해 데이비드 흄은 '수출의 증가는 해당 국가의 통화량 증가와 그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물가의 상승으로 수출에 의한 이득은 감소된다.'라고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 또한 이러한 중상주의를 비판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중상주의가 사라지기는 했으나,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함께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특히 경제가 불황일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1870년대 유럽의 공황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약해졌으며, 1920년대 경제 대공황기에도 보호무역이 채택되곤 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시기에 보호무역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간 보복 관세나 세계무역의 침체 등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무역체제가 훨씬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각국의 경제침체나 대공황시기에 이르면 공통적으로 자유무역에서 다시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우열을 가리는 것 보다 이들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시기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며, 자유주의는 선, 보호주의는 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

3. 미국의 보호무역 스타일

선진국의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고,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또한 당시 미국의 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였다.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5660억달러로 이는 한화로 약 615조원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액수였다.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

절부터 당시 미국은 자국만 손해를 보는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의 주 원인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 탓이라고 해 왔다.

2016년 11월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웠다. 이때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 간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후 다양한 무역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자국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관세보복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이루어졌다. 4)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체제에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한다. 먼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를 찾기 위한 보호 무역은 그 단점으로는 자국의 산업이 자국의 판매시장에서는 비교적 우위를 선점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더 높은 판매량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 산업체의 경쟁력의 문제는 항상 보호무역조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시로 미국의 월풀 세탁기⁵⁾는 작년말부터 올해 초 까지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그로 인해 한국의 엘지(LG), 삼성 등의 기업에 관세폭탄이 내려지면서 비교적 저렴해지고 월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들은 엘지와 삼성의 세탁기가 훨씬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내리며 결국 월풀 세탁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해외 자원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국내 여러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과 기업에게도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보호무역은 되려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세계화에 맞추어 다국적 기업들은 각 기업의 생산 공장 및 연구소들을 다양한 국가에 위치시키고, 그 생산품을 국내에 받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산공장이 위치한 해당국가에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국 기업이더라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⁶⁾는 현재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등 6개국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다. 이때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기본적으로 무관세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미국 내 기업 애플은 아이폰 생산물량 대부분을 최대 협력업체인 중국의 폭스콘에 맡겨 조립 생산하고 있어 '미국 무역전쟁'의 주요 피해 업체로 지목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휴대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서 아이폰 대부분을 생산하는 애플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호무역으로 인해 오히려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외국기업은 되려 타격을 받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4) 미중무역분쟁-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3067&cid=43667&categoryId=43667>

5) (2018.07/김현석)월풀 세탁기 사례-한경국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71711071>

6) (2018.11/심세롬)애플, 삼성 보호무역 피해-<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51768#home>

4. 중국의 자유주의 무역 스타일

상반기 중국은 12.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 이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반기 23%의 소비시장 증가, 고정 투자자산 12.6% 증가 등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⁷⁾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중국의 자유무역 제도의 시행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2019년 8월 중국정부는 산둥, 장쑤, 허베이, 광시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자유무역시험구⁸⁾를 추가 지정하며 미중 무역분쟁에서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접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용이히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대외적으로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며 이는 중국내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경제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서 다른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또한 이는 무역 협정을 맺은 더욱 경쟁력 있는 해외의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종류와 같은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하며, 자유무역체제는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전 세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 부의 격차로 인해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이 있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의 2월 기준으로 16~24세의 실업률은 13.1%에 달했고 이는 지난달에 비해 3.6%증가한 비율이었다.⁹⁾ 자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의 더 치열해진 경쟁으로 기업은 궁극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특히 소규모 기업들에게 취약하다. 따라서 중국 내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5. 결론

각 나라들의 무역방식에는 장 단점이 존재했다. 미국의 자유무역체제는 자국의 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더 높은 판매량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국의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중국의 자유무역체제는 국가들 사이의 연대가 용이하고, 자국민들에게 다양한

7) (2019.10.22/박진희)-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지정배경 및 특징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508&cg_code=

8) (2020.09.28/방정)중, 3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신설방안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4821>

9) (2021.03.16/신정은)중국 취업난-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8983976&mediaCodeNo=257>

소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자국의 기업에게는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세계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각 무역 체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 무역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무역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비극으로 나아간다.’ 이는 조지 W. 부시의 유명한 격언이다. 인류는 역사를 기록한 이래 무수히 많은 사건을 반복해 왔다. 또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과거 사건에서 교훈이나 지혜를 빌리곤 한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현재세계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려움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내외로 미국과의 무역갈등, 중국의 무역제제 등으로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자유무역의 중국 VS 보호무역의 미국으로 예상 밖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기 사이에 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과거 고려시대 거란과 송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편가르기에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각국에 대한 회유와 견제로, 전쟁도 없이 이전 거란에게 빼앗긴 강동 6주를 되찾고 이후 거란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쓸 수 있어야 하며 각 국의 법률정책에 발 빠른 대처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교부-UN 조직과 구조-https://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

관세청-자유무역협정-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

세계화-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6041&cid=46634&categoryId=46634>

미중무역분쟁-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3067&cid=43667&categoryId=43667>

(2019.10.22/박진희)-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지정배경 및 특징-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508&cg_code

2020.09.28/방정)중, 3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신설방안-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4821>

(2021.03.16/신정은)중국 취업난-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8983976&mediaCodeNo=257>